



## 그림: "장자석"은 하늘의 뜻을 알리였다

아이의 꺼리낌 없는 말: 하늘이 내린 기석에 6 큰 글자가 있어요  
선량을 박해하니 하늘이 꼭 다스릴 것입니다  
당신이 명석하기 바랍니다: 낭떠러지에서 발을 멈추고 하늘의 뜻을 따르세요  
선악을 스스로 선택하세요. 기연은 바로 사라집니다  
귀주·평당 국가 지질공원 장자석 경관(39 페지 보세요)에 근거해 그렸습니다

## 돌파프로그램 당신에게 진실한 세계를 펼쳐보입니다



- 자유문을 얻습니다: 해외전자 우편으로 freeget. one@gmail.com에 우편을 보내세요 내용은 임의로 제목을 임의로 제목은 비우지 마세요. 약 10분후 돌파프로그램을 얻으면 자유문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무계유람을 얻습니다: 해외전자 우편으로 xiazai@upup.info에 우편을 보내세요 제목을 임의로 제목은 비우지 마세요 몇분 후 몇개 IP 주소를 얻으면 무계유람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봉쇄를 돌파하고 밍후이왕을 보세요 : [www.minghui.org](http://www.minghui.org)

명혜정기 간행물은 자비로 인쇄하여 만드니 널리 전하여 보십시오

# 선악엔 응보가 따른다

명혜정기 간행물 [WWW.MINGHUI.ORG](http://WWW.MINGHUI.ORG) (인터넷 봉쇄를 돌파하고 방문)



- 교활락마 물결, 현세응보가 있다
- 죽음의 죽위 “610”, 놀라운 응보 누구를 놔주었는가?
- “검찰원에서 하나 죽으면 법원에서도 하나 죽는다”

# 목록

## 선악엔 응보가 따른다

- 4 고관악마 물결, 현세 응보가 왔다
- 12 죽음의 직위 “610”, 놀라운 악보 누구를 놔주었는가?
- 17 “검찰원에서 하나 죽으면 법원에서도 하나 죽는다”
- 20 공안인원의 비극
- 22 매체인이 당한 악보
- 24 창궐하던데로 부터 경황실책, 악행자가 당한 응보 갈수록 밀집하고 비참하다
- 27 법원인원 “죽었다 살아나” 진실을 밀하다



## 사실의 진상

- 29 천안문 분실자살 \_\_\_중공이 연출한 사기극
- 30 “1400례” 거짓 신문은 어떻게 나왔는가
- 31 “4 . 25” 평화상방은 중공이 사단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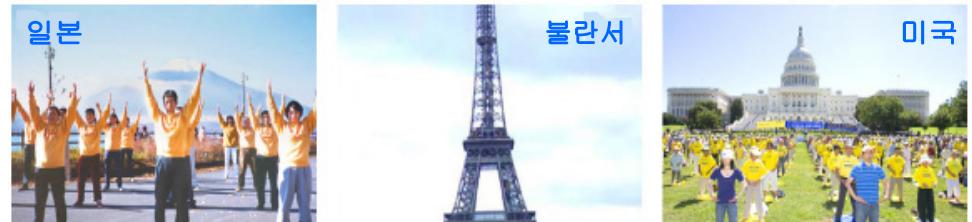
## 정의의 목소리

- 34 변호사: 파룬궁은 합법적이다
- 35 전세계에서 장쩌민 및 그 악당을 기소
- 36 이태리 매체: 생체 장기 적출은 악마 행위이다



## 천상인간

- 39 “돌” 이 실말을 하다
- 41 “전선련(真善忍)” ——전인류의 정신적 재부이다



편지를 보내왔다. 그는 2014년 5월의 축하문에 이렇게 썼다. 오늘 날 세계에서 분기가 가장 큰 것은 아마 정치관념일 것이다. 하지만 아프리카주, 동구라파부터 라틴아메리카, 북아메리카까지 한국, 일본으로부터 러시아, 빙도까지 각국에서 파룬따파에 대한 일치한 지지와 표창은 파룬따파는 정치, 종족과 문화의 계선을 초월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찐, 쌈, 런(真善忍)”은 전인류의 정신적 재부이다. ◇

## 당신은 알고 있나요

파룬궁은 또 파룬따파라 하며, 1992년 5월 중국에서 전해 온 불가상승의 수련대법이고, “찐쌈런(真善忍\_진선인)”을 근본지도로 하며, 5조의 느슨하고 아름다운 공법동작을 포함하고 있다.

● 사람더러 선을 향하도록 가르친다: 파룬궁은 사람더러 선을 향하도록 가르치며 수련자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부터, 힘써 “찐쌈런”의 표준에 따라 도덕수평을 제고할 것을 요구한다. 파룬궁 수련은 병을 제거하고 신체를 건강히 할 뿐더러 또한 사람을 성실, 선량, 관용, 평화롭게 변화시킨다.

● 사람을 건강하게 한다 : 1998년 국가체육총국은 북경, 무한, 대련 및 광동에서 5번을 거쳐 3.5만명을 조사하였다. 결국 파룬궁의 병을 제거하고 신체를 건강히 하는 총 유효률은 97.9%로 나타났다.

● 사회에 유익하다: 1998년 하반년, 부분 인대 정년퇴직 로간부들이 몇 달간 파룬궁에 대한 조사에서 “파룬궁은 나라와 인민에게 백가지 리로울 뿐 한가지 해로운 점도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년말에 정치국에 조사보고를 바쳤다.

● 세계에 널리 전해지다 : 파룬궁은 이미 세계 100여개 나라에 널리 전해지고 세계 인민의 애대와 존경을 받고 있다. 인류 심신건강에 대한 결출한 공헌에 파룬따파는 여러나라 정부의 표창, 지지의안, 지지편지 3000여 개를 수여 받았다.

전세계에서 중공은 유일하게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 정권이다.



유화 《아슈도드의 역병》, 로마 제4차 큰 역병의 두려운 정경을 묘사하였다

## 앞사람의 실패를 보고 교훈으로 삼자 : 선악엔 응보가 따른다

일부 서방학자들은 강대한 고대 로마 제국이 4 차례 큰 역병을 겪은 후 멸망한 것은 당년에 기독교 신도를 잔혹하게 박해한 것과 관련된다고 인정하였다. 2000년 전, 고대 로마 황제 네루는 사람을 시켜 로마성을 불태우고는 기독교 신도들에게 덮어 씌워 민중의 증오를 불러 일으켜 신앙자들은 잔혹한 시달림을 당하였는데 하늘 땅이 대노했다.

역사학자 (伊瓦格瑞尔斯)는 몸소 제 4 차 큰 역병을 겪었다. 그는 이렇게 썼다 : “매우 많은 사람들은 영원히 사람들 속에서 사라졌다…… 일부 사람들은 감염된 사람들 속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전혀 감염되지 않았다” 어찌하여 이럴 수 있는가? 학자들은 신앙자들이 박해 받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 취한 부동한 태도는 자신에게 부동한 후과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선악엔 응보가 따른다”는 것이다.

천년을 넘은 오늘 “찐쌈런(真善忍)”을 신앙하는 수련자에 대한 잔혹한 박해는 이미 15년간 지속되었고 선악엔 응보가 따른다는 천리도 부단히 사람들 신변에서 나타나고 있다. 자연의 법칙은 분명하며 생명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현명한 자는 진상을 똑똑히 보아내고, 같은 실패를 다시 범하지 말기 바란다. ◇

# 고관락마 물결, 현세응보가 왔다

——파룬궁 반박해 15 주년을 맞이하여

글 / 어우양페이

【明후이왕】부패한 관원이라고 모두 다 파룬궁을 박해한 것은 아니지만, 파룬공을 박해한 관원은 틀림없이 부패할 뿐만아니라 심하게 부패한 것이다. 말하자면 아주 간단한 도리인바, 장쩌민 무리의 비위를 맞춰 정치적 자본을 얻어 위로 오른 사람이라면 성품이 나쁜, 속된 말로 바로“소인”이다. 이런 사람은 정계에서 장파 무리를 따라 박해를 하면서 최대의 보호산을 둔 듯 자연히 경제상에서 부패하고 범죄를 저지를 담이 커졌다.

2 년전, 보시라이(薄熙来)는 중경에서“창홍타흑(唱紅打黑)”을 한 기세가 아주 컸다. 해외 십여 개 국의 파룬궁 수련생들에게 잇달아 기소당한 인권 망나니인 보시라이의 벼슬길이 마치 “상승세”를 탄 것 같았다.

《서유기》에: “사람 마음에 일념 생기자 천지가 다 아네, 선악에 응보가 없다면 건곤에 반드시 사가 있느니라 ”는 시가 있다. 즉, 응보를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시기가 안 된 것이다. 보시라이의 졸개 왕리쥔(王立军)이 성두(成都) 미국 총영사관으로 탈출하여 중국 고충에 “대지진”을 일으키며 보시라이도 죄인이 되었다.

## 왕리쥔

“중국 제1 경찰”이라고도 한 왕리쥔은 부부급 고관이다. 금주 공안국국장 임직 시 “금주 현장 심리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장기이식 실험을 했다. 왕리쥔의 장기 숙주실험 론문이 상을 받았는데 그는 수상식에서 “우리의 과학기술 성과는 몇천 개 현장을



왕리쥔은 15년 판결을 받았다

## —— 탈당 탈단 탈대 (3퇴) 방법 진명, 가명, 필명도 유효 ——

- \* 해외 전자우편으로 성명발표: tuidang@epochtimes.com
- \* 돌파프로 그램으로 돌파: <http://tuidang.epochtimes.com>
- \* 탈당전화: 001-416-361-9895 혹은 001-888-892-8757
- \* 탈당팩스: 001-510-372-0176 혹은 001-702-248-0599
- \* 먼저 성명을 공공장소에 붙인 후 다시 인터넷에 발표한다

【주의】 당신은 가능하게 나는 사상중에서 일찍 탈퇴하였고 또한 당비도 바치지 않으며 혹은 나이 들어 자동적으로 탈단, 탈대하였다고 말할 것이다. 그것은 모두 무효다. 왜냐하면 당, 단, 대에 가입 할 때 그 혈기앞에서 하늘을 향해 당신은 일생을, 생명을 모두 사악한 당에 받치겠다는 독맹세를 하였다. 그러므로 공개적인 방식을 취하여 탈출하는 행위의 표시가 있어야 만이 비로서 이렇게 큰 독맹세를 제거할 수 있으며 하늘이 중공을 멸할 때 평안을 보증할 수 있다!

【제시】 전화가 통한 다음, 만약에 록음에서: 이것은 빈 호이기에 이 전화를 치지 마세요라고 하면 당신은 전화를 끊지 말고 곧 바로 통할 수 있으니 서로 알려주기 바란다.

(2014년 7월, 이미 1.7 억을 초월한 중국사람이 “3퇴”를 성명했다.)

## “찐싸런”— 전인류의 정신적 재부이다

“파룬따파는 세계 수백만 사람들로 하여금 수익하였다. 파룬따파 널리 전해진 22주년을 경축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성심되는 문안을 전하는 것은 나의 크나큰 영광과 행복이다.” 캐나다 총리 하버



여러 나라의 파룬따파에 대한 표창 캐나다 총리 하버는 9년을 “세계파룬따파일”에 축하

란 더우기 말할 수 없다. 이것은 자체 모순이 아닌가?

사실상, 공산당은 “무신론”의 걸음을 걸치고 있지만 종교의 모든 특정을 구비하고 있다:

교의가 있다—마르크스 레닌주의, 모사상, 등리론, 장대표, 《당장》 등등;

교주가 있다—마, 앵, 레, 쓰, 모, 등, 장등;

교사가 있다—당위서기 및 각급 당무일군;

포교를 한다—대소회의 우두머리 연설 등;

종교활동이 있다—정치학습, 조직생활 회의 등;

교당이 있다—각급당위, 당교 판공장소 등;

교주를 숭배—마엥레쓰모에 대한 숭배

정교(正教)의 특점은 선을 말한다. 하지만 사교는 전혀 반대로 그것은 폭력을 숭배하며 극단적 행위로 인성과 생명을 멸시한다. 매우 많은 유식인 사들은 이미 인식하고 있다: 거짓말과 폭력으로 세워진 중공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교일 뿐만 아니라 정교합일(政教合一)의 사교이며 국가정권의 형식으로 그럴듯하게 그것의 “교의”를 추행하고 있다.

### 하늘이 중공을 멸하니 3퇴하면 생명을 보호한다

중공은 건국 60년 아래 하늘과 싸우고 땅과 싸우면서 바른 믿음을 박해하고 몇십차례 정치운동을 발동했다. 토지개혁부터 반혁명 진압, 3반, 5반, 반우파, 대약진, 문화대혁명, “64”에서 파룬궁까지 박해하였다. 보통 백성부터 국가 주석까지 중국사람 절반 이상이 중공의 박해를 받았었으며 8000 여만명 중국사람이 박해받아 죽었다. (60년래 3개월에 한번씩 남경 대 도살을 진행함에 상당하다).

속담에: 나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반드시 뛰진다, 사람이 다스리지 않으면 하늘이 다스린다. 한 생명이 나쁜 일만 일삶았다면 필연코 회멸에 직면할 것이다. 중공조직은 당원, 단원, 소선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늘이 중공을 멸할” 때, 이런 성원들은 필연코 재앙을 당할 것이다. “3퇴” (탈당, 탈단, 탈대) 는 중공사교에서 탈출하고 “그것을 위해 몸을 바치겠다”는 독 맹세를 제거함으로 하늘의 보호를 받게 된다. ◇

집약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2년 남짓한 시간에 그 몇천 개의 인체 장기의 래원은 어디인가? 왕리쥔의 현장 실험은, 동북을 강점했던 일본인이 실험한 “731 부대”를 떠올리게 한다. 2009년, 왕리쥔 수하 경찰이었던 목격자는 파룬궁 수련생의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했음을 증언하며 왕리쥔이 파룬궁에 대해 “반드시 깡그리 죽이라”고 명령했다고 증언했다.

### 보시라이

왕리쥔의 주인은 보시라이이다. 홍콩 《문화보》 동북판사처 주임이었던 장웨이핑(姜维平)이 “보시라는 왜 파룬궁을 사납게 타격하는가?”는 문장에서 폭로했다. 1999년 8월, 장쩌민이 료녕을 시찰할 때 당시 대련시 시장이던 보시라이에게: “당신은 파룬궁에 대한 태도가 마땅히 강경해야 승진할 자본이 있다.”라고 넌지시 귀띔했다. 권력

욕에 눈먼 보시라는 대련시를 파룬궁을 엄중하게 박해한 성시로 만들었다. 가장 먼저 대형 감옥과 로교소(오명이 자자한 마싼자 로동교양소를 포괄)를 확장신축하고 북경 청원을 갔던 파룬궁 수련생을 대량으로 감금했다. 보, 왕 사건에 관련된 “파룬궁 수련생 생체 장기 적출” 및 “정변음모”는 막후 검은 손 저우융캉을 끌어낼 것이다. 잇따라 저우융캉 및 그 배후의 더 큰 검은 손 법처리를 둘러싸고 장쩌민을 따라 파룬궁을 박해한 그런 관원들의 “현세응보”가 차례대로 그들의 몸에서 “연출”하고 있다.



보시라는 무기도형을 받았다.

### 쉬차이훠우

2014년 6월 30일, 전 중공군사위원회 부주석 쉬차이훠우(徐才厚)를 군사검찰원에 넘겨 처리하게 하였다. 쉬차이훠우는 보시라이의 악당이고, 장쩌민의 “군대에서 가장 총애” 한 사람이다. 장쩌민집단



쉬차이훠우.

의 군대에서의 대변인이며 보시라이, 저우융캉 정변에 말려들었다. 쉬차아허우는 장쩌민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정책을 예누리없이 집행하면서 군대중의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하였다. 쉬차이허우가 군대를 총책임지고 있는 기간 각지 군병원에서 대량적으로 생체장기 이식에 참여한 죄악은 국제 사회의 극진한 주목을 받고 있다.

이태리 『공화국보』는 중공  
이 군대, 의료, 사법등 옹근  
나라 계통을 리용하여 과론공  
수련생의 장기를 적출한 폭행  
을 질책하였다. (2013년12  
월)

리듬성

저우융캉의 심복 리동성은 붙잡히기 전 파룬궁 박해에 힘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관운이 떴다. 1999년 7월 20일부터 1999년 12월, 그가 중앙 CCTV 부국장을 맡고 있던 기간 주로 “초점방단”을 틀어쥐고 파룬궁을 비방 날조한 프로를 70집 방송했다. 리동성은 친히 “천안문 분신자살 기만극”을 만들어, 국내에서 반복적으로 방송하면서 민중을 기편하고 종오를 선동했다.

리동성은 선후 중앙선전부 부부장, 중앙 “610 판공실” (중공이 전문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 기구이다) 부주임, 공안부 부부장의 위치까지, 마지막엔 악보를 받은(불치병에 걸린) 류징(劉京)의 “610” 주임을 넘겨 받았지만 역시 아주 빨리 락마하여 절망지경에 처했다. 《인민일보》는 매우 의미있게 그는 “제가 짙은 불에 제가 타죽었다”고 말했다.

원래 방송인이던 리동성(다음 폐지 작은 그림)은 “천안문 분신자살” 거짓 신문 제작에 참여하여 뤄간(羅干), 저우융캉 눈에 들어 후에 정법계통에 전이되었다.

# "돌"이 실말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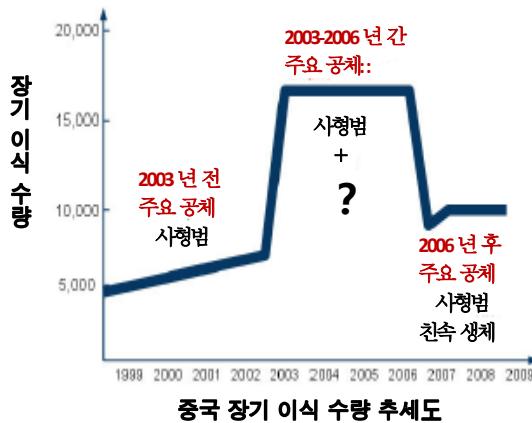
2002년 6월, 귀주성 평당현 장포향에서 지금으로부터 2.7 억년 되는 “장자석(藏字石)” 을 발견했는데, 500년전에 갈라진 거석의 절단면에 놀랍게도 정렬하게 배치되어 있는 “중국공산당당(中國共產黨亡)” 이란 6개 큰 글자가 나타났다. 중국과학원 지질전문가는 천연으로 형성되었다고 감정했다.



## 귀주성 평당현 장포향 “장자석” 풍경구와 문표

중공은 사교

『공산당선언』 첫머리에 : “하나의 유령, 공산주의 유령이, 구라파주에서 배회하고 있다”고 썼다. 공산주의 유물론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등 불이 꺼진 것 마냥 죽으면 그뿐이며 근본상 령혼을 밟지 않기에 “배회”



## 중공 로교소의 혹행을 견증



대사국제 기록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5년 까지 중국에서 매년 사형에 처한 사형범은 평균 1616명이다. 하지만 중국 장기이식 수량은 사형범 수량보다 41500명이나 많다. 조사에 따르면 해를 입은 사람은 파룬궁 수련생이었다.



구라파 의회는 결의안을 통과하고 중공은 즉시 량심범의 장기적출을 멈추며 더우기는 대규모적인 파룬궁 수련생의 생체 장기 적출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고룡룡, 37세, 심양 로신 미술학원 재무처 직원이다. “찐싼련” 신앙을 견지한다고 심양 룽산 로교소 경찰들은 전기 몽둥이로 얼굴을 회손했고 2005년 6월 16일 박해로 사망했다.



왼쪽 그림은 오스트레일리아 《시대보》에서 중앙CCTV “분신자살프로”에 대해 강력히 질문했다: 사전에 사실을 모르는 경찰측은 90초 사이에, 대량의 소방설비를 지니고 화면에 나타났다. 그래 경찰은 소화기를 지니고 순라한단 말인가? 허점은 또 매우 많다: 중앙CCTV 화면에서 류춘링

이란 여자는 불에 타죽은 것이 아니라 군경이 무거운 물체로 머리를 쳐 넘어졌다. 국제교육발전조직(IED)은 2001년 8월 14일, 련합국회의에서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은 중공의 국가공포주의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성명은: 옹근 사건은 정부가 한손으로 연출하였다고 지적했다.

## 쑤룽

2014년 6월 14일, 매체에서는 분분히 전국 정협 부주석, 강서 성위서기 쑤룽(苏荣)이 락마한 소식을 보도했다. 중공이 파룬궁 박해 초기 길립성위 부서기로 임직하고 있던 쑤룽은 또 길립성위 “파룬궁 문제 처리 령도소조”조장을 맡고 모든 성의 파룬궁 박해를 주최했다. 쑤룽은 직접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공격 제거, 세뇌, 납치, 혹행등 죄악에 참여하였다. 이를테면: 쑤룽은 직접 가오칭하이(高清海) 교수더러 “전화” 하라고 위협 휩박하였다.



쑤룽

가오칭하이는 저명한 철학자, 박사연구생 지도자이며 철학계와 고등학교에서 매우 높은 위망을 갖고 있었다. 가오칭하이는 이전에 병으로 해마다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1993년, 그는 파룬궁을 수련하고 이로부터 신체가 건강하고 얼굴엔 홍조가 비껴 더는 약을 먹고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1999년 7월, 장쩌민 정치류망 집단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칠순에 가까운 고칭하이 교수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고칭하이 교수의 신분과 영향으로 하여 그는 길립성의 박해 중점 인물로 되었다. 당시 길립성위 부서

기였던 쑤룽은 자신이 위로 기여 오르기 위한 정치 자본을 얻기 위하여 직접 고청하이 교수집에 가서 위협 펫박하면서 강박으로 그를 “전화”시키고, “태도표시”를 하도록 한동안 거의 날마다 다니면서 가만 놔두지 않았다. 거대한 정신 압력을 받은 고교수 및 가족들은 계속 련공할 수 없게 되자 그의 옛 병이 도져 원한을 품고 세상을 떴다.

쑤룽은 파룬궁 박해에 힘을 아끼지 않아 장쩌민의 눈에 들어 2001년 1월 청해성위 서기로 승진했고, 후에는 감숙성위 서기로 갔다. 쑤룽은 줄곧 장쩌민의 박해지령을 적극적으로 집행했다.

2004년 11월, 당시 감숙성위 서기였던 쑤룽이 우빵거우(吳邦國)를 따라 아프리카주를 방문하러 갔을 때 해외 파룬궁 수련생들은 그가 길림성에서 중공“610 판공실” 두목으로 있던 기간에 파룬궁 수련생에 모살, 혹형으로 괴롭히고 그리고 모욕한 죄행을 잠비아 고급법원에 고소했다.

잠비아 고급법원 직원이 직접 전달한 문건을 받은 쑤룽은 경황실책하더니 잇따라 대오에서 떨어져 구사카에 머물었다. 그가 11월 8일 법원심문 때 출두하지 않아 “법정 모독죄”로 고소당했다. 그날 오후 쑤룽은 호텔에서 도망쳤다. 잇따라 잠비아 경찰측은 체포령과 지명 수배령을 내리고 쑤룽을 체포하려 했다. 보도에 따르면, 쑤룽은 중공대사관 협조로 황망히 국경을 넘어 짐바브웨에 갔고, 다시 남아프리카에 도망쳐 여러모로 거쳐 중국본토로 돌아 갔다고 한다.

오늘 쑤룽은 끝내 죄수로 되였다. 10년전, 쑤룽은 보기에는 외국법률의 제재를 벗어난 것 같지만 실질상 그는 천리법칙의 징벌을 벗어나지 못하고 다만 형식을 바꾸었을 뿐이다.

### 완칭량

광주시위 서기 완칭량(万庆良)의 락마는 매우 희극적이였다. 락마당일, 당지 매체는 신문 첫 소식에 그의 정치활동을 보도하고 있었는데 오후 완칭량은 붙잡혀 갔다. 대변인 《인민일보》마저 완칭량이 “어리석게 놀면 언제든지 갑자기 마련”이라며 조소했다.



완칭량

데이비드• 매터스, 캐나다 변호사이며, 노벨평화상 입후보이다. 2006년, 그는 캐나다 전 아태사 사장인 데이비드• 킬고어와 합작하여 쓴 보고에서 중공당국은 계통적으로 수천수만의 량심범—갇혀 있는 파룬궁 수련생을 살해 했다고 기소했다.

“2000년부터 2005년 사이, 41500여명 파룬궁 수련생이 도살되고 강제로 장기를 적출당했다”고 데이비드는 말했다. “중국의 감옥계통을 놓고 말하면,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리익의 교역이다: 우리가 추측하는 가격은 10억 달라이며 이런 돈은 수술을 실시하는 여러 장기이식 센터와 범인을 공급하는 감옥사이에서 유통되고 있다.” 독일 《명정주간》(Der Spiegel) 한달전 보도에서 천진 오마열 의료보건 이식센터에서 부르는 신장 하나의 가격은 35만 달라이다고 말했다.

1999년,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할 때 공포스러운 “장기를 뜯어내는 흐름”이 시작되었다. 이런 평화스러운 파룬궁 수련생은 “쩐, 쌐, 런(真、善、忍)” 3글자를 믿어 그들의 신체는 수련하면서 가장 좋은 상태에 처했다. 그들은 건강한 생활방식을 지키고 아울러 도덕이 고상했다.

하지만 박해는 잔혹했다. 하늘 땅을 뒤엎듯이 사람을 붙잡고 파룬궁 수련생을 강박적으로 사상개조를 하고 로교소에 갇아 두었다. 매터스는 :

“그 곳에서 파룬궁 수련생이 실종되었다. 그 곳은 근근히 임의적으로 감금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체 장기 창고였다.”고 말했다. 석방된 파룬궁 수련생의 서술에 의하면 그들은 로교소에서 혹형 시달림과 학대를 받았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파룬궁 수련생에게 경상적으로 피 화험과 신체검사를 요구했다. 이것은 건강을 위한 기본적인 검사가 아니라 “이것은 가져 갈 ‘상품’에 대한 선택 준비였다.”고 말했다.

2013년 12월 12일, 구라파주 의회에서는 결의안을 통과하고 “중공이 즉시로 량심범의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멈추고 특히는 대규모적으로 파룬궁 수련생의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멈추라”고 요구하면서 아울러 즉시 파룬궁 수련생을 포함한 모든 량심범을 석방할 것을 호소했다. ◇

였으면 그만이고 때려 죽었으면 자살로 치라”는 멸절 정책으로 하여금 수많은 파룬궁 수련생들이 혹형당하고 심지어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당했으며 이미 3700 여명 파룬궁 수련생이 박해로 죽었다고 알려져 있다.

15년래, 장씨집단의 박해 행위는 이미 런합국 1998년에 발 표한 《국제형사법원 로마규약》 제 6 조 “종족멸절죄” 와 제 7 조의 “인류위해죄” 가 성립된

다. 무릇 이런 류의 죄행을 범한 독재자는 가히 그 어떤 국가의 법정에서도 그를 기소할 수 있다. 2001년부터 오늘까지, 전세계 6 대주 40 여개 나라에서 파룬궁 박해로 기소당한 중공고관은 40여명에 달하며 장쩌민을 포함한 뤄간, 저우융캉, 보시라이 등이다. 그중 보시라이, 류치, 샤더린 등은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다. ◇



토이기 《세계도보》 등 세계 큰 매체에서 장쩌민, 뤄간, 보시라이 등 중공고관이 파룬궁 박해로 기소당했다.

## 이태리 매체: 생체 장기 적출은 악마 행위다

【明후이왕】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중공의 생체 장기 적출 죄행을 규탄하고 있다. 280 여만명 독자가 있는 이태리 제 2 신문 《공화국보》는 2013년 12월 23일의 보도에서: 생체 장기 적출은 악마 행위이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제목이 “중국 량심범을 위해 싸우는 데이비드”란 보도에서: “그들은 장기가 배합 되는 젊은 범인을 죽이고 그의 장기를 적출한 다음 황금 가격으로 환자에게 팔고 있다.” 고 말했다.

완칭량은 관직은 높지 않았지만, 파룬궁 박해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 했다. 완칭량이 성공청단위 서기로 있을 때 (2000년-2003년),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광동 청년과 학생들에게 파룬궁을 모함하는 각종 활동을 벌렸다. 이를테면: “적발 비판”, 반“×교”(주: 중공이야 말로 진정한 사교) 대서명, “선서”, 청소년에게 강제로 광범위하게 “보증서”, “결렬서”를 쓰게 했고, 중공의 거짓말로 민중을 세뇌했다. 2003년 후, 완칭량은 제양시 서기 재임 시 이른바 “덕육기지”를 건립해 군대훈련을 한다는 명의로 제양시 관할 범위의 현, 시, 구의 중학생을 속여 강제 세뇌를 감행했다. 완칭량은 파룬궁을 박해하는 사악세력의 선두에서 함부로 체포, 구금, 소란, 혹형, 괴롭히도록 지휘하는 외 제양 파룬궁 수련생을 살해하기도 했다.

### 저우융캉

저우융캉은 파룬궁 박해 원흉 중 한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파룬궁 수련생에게 2 번째로 기소당한 악인이다. 2001년 8월 27일 오후 3시경, 당시 사천성위서기 저우융캉이 미국 시카고를 방문했을 때 “반인도적 범죄” 기소장을 받았는데, 《고문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과 《외국인 민사권리 침범 보상 조례》를 위반하였다고 고소당했다.

저우융캉은 사천에 있는 몇년 간 사천을 파룬궁 박해가 가장 심각한 성 중 하나로 만들었다. 저우융캉은 무고자의 선혈로 자신의 벼슬길을 열었고, 2003년에는 공안부 부장이 되였다. 박해를 유지하기 위해 장쩌민은 또 저우융캉을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넣어 뤄간의 정법위 서기를 넘겨 받아 알짜 “인권살인자”가 되였고, “안정유지”란 명분으로 중국을 곳곳에 원망이 끓이지 않게 만들었다.

프랑스 방송국 보도에 따르면, 저우융캉은 현재 내몽고에 수감되어 있으며, 그의 큰아들 저우빈도 같은 곳에 갇혔다고 한다. 현재 저우융캉의 일부 측근들도 체포당했는데, 그들은 저우와 함께 돈을 벌었을 뿐만 아니라



저우융캉

파룬궁 박해에 동참하여 현재 현세현보로 저우융캉의 순장품이 된 것이다.

### 쩡칭홍

최근 소식통을 따르면, 장쩌민의 “제 1 군사”이며, 전 중공 국가 부주석인 쭉칭홍이 이미 체포돼 천진에 갇혔다고 한다. 이에 앞서 쭉칭홍의 부하들은 이미 대대적으로 청산당하고 처리되었다.

장쩌민이 1999년 7월 파룬궁 박해를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공산당 간부와 대중들은 찬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쭉칭홍, 뤄간 등은 최초로 장쩌민의 파룬궁 박해를 지지한 소수의 정치 기회주의자이다.

1999년 7월 23일—박해한지 3일째, 중공 조직부를 주관하는 쭉칭홍은 책임자 명의로 《인민일보》담당 기자들과 전당이 파룬궁 박해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고, 중공 강씨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하는데 여론을 조성했다. 그 후 쭉칭홍은 중공 조직부에서 수차례 “담화”에서 각급 당위와 조직부에서 파룬궁과의 장기 투쟁에 참여할 것을 선동했고, 파룬궁 수련생을 “전화” 할 것을 요구했다. 그 뿐만 아니라, 장쩌민, 쭉칭홍, 뤄간 집단은 2001년 1월 23일 “천안문 분실자살 기만극”을 조작하여 파룬궁에 죄를 뒤집어 씌우며 전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쩡칭홍은 장쩌민의 집정 당시 또 중공의 방대한 특무계통을 통제했다. 중공은 해외에서 암암리에 매체와 언론인을 통제해 주기적으로 파룬궁에 대해 침범하며 소란을 일으켰다. 현재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 량전영(梁振英)마저도 쭉칭홍이 직접 양성한 특무였다. 특무두목 쩐칭홍은 중공 당내에서 두 번째 캉성(康生)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쩡칭홍

\* \* \* \* \*

인간의 모든 것은 죄다 천상의 체현이며 파룬궁 박해에 참가한 고관이

여 있고 그 어떤 기타 기구 (민정부, 공안부, 최고법원 최고검찰원 등), 개인은 모두 법권이 없다. 그리고 《헌법》에는 국민은 신앙자유가 있고 선교자는 무죄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현행의 중국법률에 따라도 파룬궁은 합법적이다. 파룬궁 수련생의 수련 (신체건강과 도덕재고) 과 진상을 말하는 (진상자료 발급) 행위 모두 합법적이다.

변호사는 또 제기했다: 제멋대로 파룬궁 수련생에게 들씌운 죄명은 제멋대로 형법을 람용한 것이며 박해에 참여한 사법인원은 법을 집행하며 법을 어기였으니 이미 사리를 위하여 법을 어긴 죄가 성립된다. ◇

## 전세계에서 장쩌민 및 그 악당을 기소

1999년 7월, 중공 장쩌민집단이 발동한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명예상에서 더럽히고, 경제상에서 무너뜨리고, 육체상에서 소멸하라”, “때려 죽



## 변호사: 파룬궁은 합법적이다

근년에, 변호사들은 파룬궁 수련생을 위하여 천여차례 무죄변호를 하였다. 변호사들은 : 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아무런 법률 근거가 없다. 파룬궁은 중국에서 완전 합법적이다고 제시했다.

1, 박해가 시작된 후의 2000 년 4 월 9 일, 공안부에서 반포한 《사교조직을 인정하고 제거할데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통지》 (공통자[2000]39호) , 이 문건은 “사교” 조직 14 가지를 공인하였는데 파룬궁은 없다.

2, “사교” 설은, 1999 년 10 월 26 일 강택민이 《费加罗报》 기자 취재를 접수 할 때 나왔고 다음 날 《인민일보》는 바람잡으며 평론원 문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개인 연설” 과 “매체보도” 는 법률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강택민의 위의 행위는 위법이다.

3, 1999 년 10 월 9 일과 2001 년 6 월 4 일, 중공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사교조직을 조직하고 리용한 범죄 사건을 처리할데 대한 구체적인 법률사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 해석》 (1,2) 를 내놓았다. 《헌법》과 《립법법》에 근거하면, “최고법원 최고검찰원” 은 법률해석 권력이 없기 때문에 최고법원 최고검찰원의 “법률해석” 은 헌법을 위반하고 법을 위반하였으니 마땅히 철소하고 폐지시켜야 한다. 이 외, 이 두개 해석에도 모두 파룬궁을 제기하지 않았다.

4, 중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립법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소속되



파룬궁 수련생을 위하여 무죄 변호한 부분적 대륙 변호사(왼쪽부터): 리쑤빈, 머사오핑, 쿠궈딩, 장톈웅, 청하이, 리승빈, 탕지텐, 세엔이, 리허핑

줄줄이 락마하는 배후에 뚜렷이 드러나는 것은 “선악에 응보가 따른다”는 천리다.

응보는 목적이 아니라 세상사람에 대한 하늘의 일깨움이다. 중공 거짓말에 미혹되어 파룬궁 박해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낭떠러지에서 발을 멈추고 고개를 돌리면 언덕임을 제시한다. 그런 사악한 우두머리들은 어쩌면 이젠 머리를 돌릴 기회조차 없을 것이며 오로지 더욱 큰 응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응보를 밀하면 사람들은 “동창사건” 의 진회(秦桧)를 잊을 수 없다. 진회는 동쪽 방에서 아내 왕씨와 악비를 살해하려고 밀모하였다. 후에 진회는 서호에서 놀다 배에서 잠이 들었다. 꿈에 머리를 길게 드리운 사람이 큰 소리로 말했다: “너는 나라와 국민을 해쳤기에 내가 이미 하늘에 알렸다. 하늘에서 사람을 보내 너를 잡아 갈 것이다.” 진회는 몹시 두려웠다. 집에 돌아 온 후 크게 얇더니 얼마 안 되어 죽었다.

진회가 죽은 지 몇년 되지 않아 그의 아들 진시(秦熺)도 죽었다. 왕씨는 신안을 설치하고 도사를 청해 귀신을 쫓게 했다. 도사는 하늘에 표를 받쳐 들었다. 흐릿한 가운데 진시가 형틀을 목에 건 모습을 보고는 물었다: “태사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귀신 도시 평두에 있다”고 진시가 대답했다. 도사는 진시가 한 말에 따라 평두로 가니 과연 진회가 보였다. 모치설 (万俟高)도 모두 칼을 쓰고 있었는데 각종 형벌을 다 받았다. 진회가 말했다: “미안하지만 내 부인에게 동창에서 악비를 살해하려 밀모한 일이 폭로됐다고 전해 주시오!”

2014 년 7 월 20 일, 파룬궁 수련생 반박해 15주년을 즈음하면서 진회부부가 악명을 오래도록 후세에 남겨 놓고, 끓어앉아 사람들의 버림을 받고 있는 동상을 다시 보면 그래 현재 세상 사람들에 대한 경시가 아니란 말인가? ◇



끓어 앓은 진회부부



감숙성 넣현“610판공실” 주임 명조청의 차사고 현장 (인터넷 그림)

## 죽음의 직위"610", 놀라운 악보 누구를 놔주었는가?

글 / 링후이기자 종합보도

“우리는 무슨 덕이 없어 이렇게 비참한 일이 생겼는가！” 양춘웨(楊春悅--내몽고 적봉시“610판공실” 주임)의 아들은 차사고로 비참하게 죽었고, 양춘웨의 아내는 한 달남짓 올다 이 후로는 줄곧 미친 상태에 있었다. 2014년 3월, 양춘웨도 암으로 그가 사람을 해치고 자신을 해친 인생을 마감하며 죽었다.

양춘웨 부자는 중공에 세뇌되어 “찐싼린(真善忍)”을 신앙하는 좋은 사람 박해에 참여하여 수많은 선량한 사람을 그렇게 비참하게 박해하였으니 참으로 “큰 덕을 잃은” 일을 한 것이다.

양춘웨, 65 살, 원 내몽고 적봉시(赤峰市) “610 판공실” 주임으로 중공

麻—중공 정법위원회 두목 뤄간의 친척)의 비방 언론을 방송했다. 죄를 들씌우는 이 프로가 방송된 후, 파룬궁 수련생들이 진상을 말하는 것을 통해 북경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프로의 실책을 승인하고 아울러 파룬궁에 대한 정면보도 프로를 방송했다.

### 천진사건

1999년 4월 11일, 허쭤슈는 천진교육학원 《청소년 과학기술 박람》 잡지에 문장을 발표하여 또 한번 1998년 북경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방송하였던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혜를 인용하여 파룬궁을 비방했다.

천진 파룬궁 수련생들은 4월 18일부터 24일에 천진 교육학원 및 상관기구에 가서 실정을 반영했으며 전반 과정은 평온하고 상서로웠다.

하지만, 4월 23일과 24일, 천진시 공안국은 갑자기 방폭 무장경찰을 출동하여 파룬궁 수련생을 구타하여 40여명이 무고로 붙잡혔다.

천진공안은 파룬궁 수련생들에게 말했다：“당신들 북경에 가세요, 북경에 가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고 말했다.

### 법에 따라 상방하고 정치와 무관하다

1999년 4월 25일, 만명 파룬궁 수련생들은 자발적으로 국무원 신방판공실에 와서 헌법이 부여한 상방권리를 행사하였다. 당시의 총리는 파룬궁 수련생 대표를 접견하고 아울러 천진 경찰에게 사람을 내 놓으라는 명을 내렸다. 그날 저녁, 파룬궁 수련생들은 조용히 떠났다. 전반 상방과정은 질서가 정연하고 떠날 때 땅에는 종이 조각마저 없었고 경찰이 던진 담배 꽁초리마저 파룬궁 수련생이 깨끗이 청소하였다.

그날, 파룬궁 수련생 대표는 3가지 요구를 제기했다：

- 1, 붙잡힌 파룬궁 수련생을 석방할 것
- 2, 파룬궁을 수련하는 군중들에게 느슨한 수련환경을 줄 것
- 3, 파룬궁서적 출판을 합법적으로 할 것

위에서 서술한 “3가지 요구”에서도 볼수 있는 바 파룬궁 수련생들은 하나의 자유로운 수련환경과 좋은 사람되는 권리를 요구하였고 그 어떤 정치 문제에도 미치지 않았다.◇



1999년 4월 25일, 파룬궁 수련생들의 평화상방 현장이다. 거리의 질서는 정연하고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하며 “포위공격” 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 중공은 계속 사단을 만들었다

◎ 중공은 사람을 다스리는 력차 운동에서 모두 대변인 매체에서 투쟁 비판 먹칠하는 것 부터 시작했다. 1996년 6월 17일, 중공매체《광명일보》는 파룬궁을 비방했다.

◎ 1996년 7월 24일, 중공중앙 선전부 하속인 신문출판서에서 전국 각성시 신문출판국에 내부 문건을 하달하고 파룬궁 서적 출판을 금지 시켰다.

◎ 1997년 초, 중공공안부는 “죄를 먼저 정한 다음 조사하라”는 방식으로 전국에서 “증거”를 수집하여 파룬궁을 모함하려 했다. 각지 공안국에서 조사한 후, 모두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반영했다.

◎ 1998년 5월, 북경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파룬궁에 대한 허쭤슈(何祚

장씨집단을 따라 파룬궁을 박해하였고, 자오옌샤(趙艳霞), 저우차이샤(周彩霞), 정란펑(郑兰凤), 옌리(闫利)등 몇십 명 파룬궁 수련생이 박해 받아 죽은데 대해 책임이 있으며 그가 만들어 낸 억울한 사건으로 하여 수백만명 파룬궁 수련생들이 판결받고 천여명이 로교, 구류당했다. 양춘웨이는: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하여 죽게 되었거나 죽었으면 그들을 감옥, 로교소, 혹은 병원에 보낸다음 거기에서 사망신고를 하면 우리한테 책임이 없다”고 아우성쳤다. 양춘웨이는 내몽고 오원 로교소에 전화걸어 말했다 “왕샤오동(王晓东-파룬궁 수련생)을 로교소에서 죽게 하라”.....

양춘웨의 아내, 아들은 모두 그가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양춘웨는 28살 아들 양즈후이(杨志慧)를 “610 판공실” 기사로 배치하였다. 2005년 8월 차를 몰고 앞쪽에 멈춰서 있는 큰 트럭 밑으로 기여들어 두개골이 열려 당장에서 폭사한 비참함 정경을 눈뜨고 볼 수 없었으나 기사 옆석에 앉은 사람은 도리여 아무렇지도 않았다.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의 말에 의하면 양즈후이의 머리는 반쪽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이리하여 앞에서 서술한 양씨 아내의 울부짖이 있게 된 것이다.

“610 판공실”은 중공 장쩌민 패거리가 1999년 6월 10일 전문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하여 세운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분포되어 있는 중공사당의 불법조직으로서 나치스 게슈타보와 류사하다. 각지 “610” 불법 인원들은 “공안, 검찰원, 법원”을 조종하여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하면서 “법제교육”이란 간판을 내걸고 불법으로 사사로이 세뇌반을 꾸려 당시 파룬궁 수련생과 로교소, 감옥에 불법으로 감금되어 있다 기일이 된 파룬궁 수련생을 납치하였다.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아래, “610 판공실” 인원들은 나쁜 일만 일삼아 련속 악보 받았으며 심지어 가족에까지 미치였다. “610 판공실”的 박해 직위는 이미 “죽음의 직위”로 되였다.

\* \* \* \* \*

▲멍조칭(孟兆庆), 감숙성 넝현 “610판공실” 주임이다. 2011년 12월 23

일 오전 11 시, 년현 법원의 승용차에 앉아 고속도로를 달리다 트럭차 앞 밑쪽으로 기여들었는데 기름 통에 불이 나면서 큰차에까지 불이 붙어 순식간에 불길은 두 차를 삼켜버렸고 멍조칭은 당장에서 죽었다.

▲루허밍(芦鶴鳴), 산서성 한중시위 판공실 부비서장, 한중시“610”주임이다. 그는 “전화하지 않으면 판결한다”로 파룬궁 수련생을 위협하면서 박해에 힘을 아끼지 않았다. 2013년 3월 23일, 그는 딸과 사위, 어린 외손군, 비서와 기사까지 삼령 야외차를 타고 외출하였다. 서한 고속도로 불평현 경내의 터널에서 달리고 있을 때 두 개의 큰 화물차 중간에 끼여 부딪쳤다. 루허밍의 차는 찡기어 순식간에 변형되었고 아이와 사위(릉골뼈 몇개 골절되었다)를 제외한 다른 4 사람은 비참하게 죽었다.

▲면이징(門懿鏡), 바이웨이취안(白维权), 감숙성 경양현 “610”주임이다. 2003년 1월 8일 파룬궁 수련생을 “강제전화”시키려고 외출하는 도중 차가 뒤번지면서 쌩쌩이 죽었다.

▲왕푸년(王福年), 길림성 매하구시 “610”주임이다. 2004년 11월 8일, 왕푸년과 “610”성원인 저우(周)씨, 류평등은 파룬궁 수련생을 납치하러 가는 도중에 차가 텅굴어 다리 밑에 떨어져 왕, 류, 저우 3 사람은 당장에서 죽고 다른 한 사람은 상하여 입원했다.

▲쑨바오위안(孙保元), 하북성 창주시 연산현 “610”주임이다. 2010년 5월 30일 차를 몰고 화물차와 부딪쳐 44살에 처자식을 버리고 세상을 떴다.

▲장스밍(张石明), 호북성 황강시위 부비서장 겸 첫 “610”주임이다. 2005년 2월 13일 갑자기 심경색으로 죽었는데 48살이였다.

▲왕커우(王克武), 호북성 황강시 제 2 임 “610”주임이다. 임직한지 얼마 안되어 역시 병으로 (간암), 2005년 청명절을 3일 앞두고 죽었다.

▲당신파(丁鑫发), 강서성 공안청 부청장이다. 전직으로 파룬궁을 박해 하더니 2007년에 무기도형을 받았다. “610”주임, 쉬샤오강(徐小刚)은 17년 판결을 받았다.

▲평진성(彭金生), 강서성 구강시 “610”주임, 시공안국 국보지대 대장이다. 2001년 12월 말 무년현 태평산으로 파룬궁 수련생을 납치하러 가는

**기자: 임무를 완성하지 못하면 상금이 없다**

1999년 7월 20일 이후, 하북임구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련속 20일간 한가지 거짓 뉴스를 회전 방송하였다 : 임구시 사람 위안위거(袁玉閣)는 파룬궁을 련마하고 정신이 잘못되어 아이를 안고 백마하에 뛰여들어 자살했다. 중앙텔레비전 제 3 프로에서도 후에 이 거짓 뉴스를 방송했다.

진실한 정황은 이러하다 : 1998년 5월 어느 하루, 위안위거는 자전거를 타고 하학하는 아이 마중을 갔다. 그녀의 자전거 금정거가 고장나 학생을 피하다가 다리 아래 흙기슭에 넘어졌다 (강에 빠진 것이 아니다) 한 주일 후 외상은 다 나았다. 당시 거짓 뉴스를 방송할 때 위안위거는 북경으로 상방하러 갔어 불법적으로 갇혀 있었던 것이다. 2000년 1월 4일, 위안위거는 국제사회에 편지를 띄워 사실을 똑똑히 밝혔다 :

내가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사실이며 나는 불주의로 다리 아래로 떨어졌는데 보도에서는 도리여 아이를 안고 강에 뛰여들어 자살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사실을 외곡하여 억지로 “터무니 없는” 죄명을 파룬궁에 들씌운 것인데 들씌울 수 있는가? 사후, 나는 취재하러 온 기자에게 : “텔레비전 방송국의 보도는 사실에 어긋납니다. 당신은 직업도덕이 있어야 합니다.”고 말하자 기자는 : “상급에서 내린 임무를 완성하지 못하면 상금이 없습니다!”고 말했다. ◇

## "4.25" 평화 상방은 중공이 사단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파룬궁 수련자들이 신앙하는 “천선련(真善忍)”은 중공이 신봉하는 “가악투(假惡斗)”와는 전혀 같지 않다. 때문에 중공은 1996년에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일으키려고 시도했다. 끝내 1999년 4월 천진공안이 무리로 40여명 파룬궁 수련생을 납치하고 구타하는 일로 하여 1999년 4월 25일의 평화상방을 불러 일으켰다.

옹근 사건은 “정부가 한손으로 연출한 것이다”고 했다. 중공 대변인은 확실한 증거 앞에서 변명하지 못했다. 이 성명은 이미 련합국에 등록되었다.

**【파룬궁은 자살과 살생을 금지한다】** 파룬궁은 불법수련이며 살생과 자살을 금지한다. 1995년에 출판한 파룬궁 주요저작 《전법륜(转法轮)》 <제7강>에는: “련공인은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써여 있고 《시드니법회 설법(悉尼法会讲法)》에는: “자살은 죄가 있다.”고 써여 있다. 분신자살자는 파룬궁 수련생이 아니다. ◇

## “1400례” 거짓 뉴스는 어떻게 나왔는가

중공이 파룬궁 박해 시초에 관방매체를 이용하여 내놓은 대량의 사람을 놀래우는 “뉴스”, 알려져 있는 “1400례”는 파룬궁에 먹칠한 것이다. 이런 거짓 뉴스는 어떻게 나왔는가? 두가지만 레를 들겠다.

### CCTV에서 연출한 “배를 가르고 파룬을 찾다”는 웃음거리

마젠민(马建民), 하북성(河北省) 임구시(任丘市) 화북유전(华北油田)에 살고 있으며 본인 및 가족에 모두 정신병사가 있다. 어느 날 마젠민은 혼자 집에 있었는데 그의 집 사람이 돌아 왔을 때 그는 배를 가른 채로 화장실에 숨져 있었다. 당시 공안국의 사람은 : 마젠민이 죽을 때 홀로 집에 있었고 도대체 왜서 배를 갈랐는지는 누구도 모른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장쩌민의 파룬궁 박해정책과 손잡고 공안부에 아첨하면서 정치자본을 얻기 위하여 억지로 마젠민의 죽음을 “배를 가르고 파룬을 찾다”고 말했다.

당시 중앙텔레비전에서 마젠민의 집에서 프로를 편집할 때 마젠민의 아들은 :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은 파룬궁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아울러 텔레비전에서 연출하는 것을 거절한다고 거듭 성명했다. 하지만 중앙 텔레비전에서는 사실을 관계치 않고 여전히 한손으로 “배를 가르고 파룬을 찾다”는 기편극을 연출했다.

도중에 갑자기 뇌출혈로 죽었다.

▲리젠판(李建华), 강서성 구강현 제 1 임 “610”주임이다. 2007년 말 병으로 폭사했다.

▲리자밍(李佳明), 흑룡강성 치치할시 “610”주임이다. 2012년 7월 7일 아내와 대운발 슈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심경색으로 죽으면서 49 살 생명을 마감했다.

▲위웨진(于跃进), 산동성 래양시 공안국 “610”주임이며, 사람들은 “위쥐(于局)”라고 불렀다. 2011년 4월 20일, 방금 “직위내 정년퇴직”을 한 위웨진은 갑자기 뇌출혈로 죽었는데 그해 54살이였다. 2008년 7월 25일, 위웨진의 아내 장리나(姜丽娜)는 차사고로 죽었고 피투성에 엉망진창이 된 육체는 분간하기 어려웠다. 2010년, 위웨진은 한 젊은 여성을 사귀였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위웨진은 결혼하자 마자 죽었다.

▲류웨이동(刘维东), 산동성 서하시 “610”부주임이다. 2012년 2월, 결장암이 확산되어 구급치료 해도 낫지 않아 서하시 인민병원에서 고통스럽게 죽었는데 당시 50살 좌우였다.

▲리쭝광(李增光), 산동성 서하시 “610”성원이다. 2004년에 이선암으로 죽었다.

▲마옌후이(马衍会), 산동성 룽구시 “610”부주임이다. 2007년 직장암으로 죽었다. 쉬동성(徐东升), 해양시 “610”부주임이다. 악보는 가족에 미치여 아내는 유선암으로 앓고 아들은 차사고로 죽었다. 쟽수친(宋书芹), 초원시 원 “610”부주임이다. 2009년 11월 특대 차사고를 당했다.

▲류우청(刘五庆), 감숙성 경양시 정법위원회서기, “610”주임이다. 암증의 시달림 응보를 실컷 겪고, 2006년 8월에 죽었다.

▲리췬(李群), 내몽고 아극석시 “610”주임이다. 암으로 죽었다.

▲톈리쥔(田立军), 흑룡강성 목단강시 정법위원회 서기이다. 리창청(李长青), 정법위원회 부서기 겸 “610”주임이다. 두 사람은 당시 파룬궁 수련생 박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더니 잇따라 암에 걸렸다. 리창청은 2007년 7월 22일에 암병으로 죽었다. 톈리쥔도 암으로 죽었다. 이 후 뒤를 이어 임직한 정법위원회서기 판잉(潘影)도 암에 걸렸다.

▲왕즈제(王志杰), 흑룡강성 수화시 공안국정위, 수화시 “610”주임이다. 2009년 4월 14일 암으로 죽었다.

▲추이이원(崔义文), 흑룡강성 해림시 원 정법위원회 서기이며 “610”에서 전문 파룬궁 박해 “사업”을 틀어쥐고 있더니 악보로 물에 빠져 죽었다.

▲양성위안(杨兴源), 운남성 “610”주요성원이다. 2008년 갑자기 병에 걸려 죽었다.

▲위안서우상(袁寿祥), 운남성 홍하주 정법위원회 서기다. 간암으로 죽었다. 홍하주 건수현에서만 “610” 인원으로부터 공안국보의 십여명이 파룬궁 박해에 참여하여 악보 받았다. 이를테면 : 건수현 “610” 주임 평중파(彭中发)는 암에 걸려 죽었다.

▲왕중쥔(王忠俊), 해남성 정안현 “610”주임이다. “당신들이 보옹이라 말하는데 어디에 보옹이 있는가? 나는 당신들 사람을 많이 붙잡았는데 나는 여전히 멋지고 멀끔하며 보옹이 있다리를 보지 못했다”며 아우성쳤었다. 이 말을 하고 한달도 되지 않아 그의 외동 아들은 광주에서 액화가스가 터져 중독되어 죽었다. 2004년 5월 8일 그의 아내는 우물에 빠져 자살하여 죽었다. 한 사람의 악한 짓이 가족에 미친 것이다.

▲장용중(江勇忠), 호남성 “610” 부 순시원으로 장쩌민 집단을 따라 파룬궁을 박해한 악행이 가족에 미치여 그의 부모님은 “부친은 장년에 마비되고 모친은 두눈이 실명되었다”.

▲지야저우(纪亚洲), 하북성 승덕시 “610”的 주요 “인물”이다. 2014년 5월, 갑자기 뇌출혈로 혼미상태에 빠져 승덕시 부속병원 중병 간호실에서 구급 받았다. 그의 아내 리쑤란(李素然)은 이로 정신이 봉괴되어 2014년 5월 16일 승덕시 라한산에서 뛰여내려 자살해 죽었다. 승덕시 검찰원에서 사업하는 그의 딸은 비통과 절망으로 눈물로 얼굴을 적시고 있다.

\* \* \* \* \*

이상은 근근히 기자가 링후이왕의 문장에서 임의로 본 사건들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보기만 해도 몸서리 치게 한다. 링후이왕에는 아직도 대량의 사건들이 있지만 편폭의 제한으로 본문에서 수록하지 않았다.◇

## 천안문 분신자살--중공이 연출한 사기극



CCTV 화면에서 분신자살자 류춘링(刘春玲)은 불에 타 죽은 것이 아니라 한 사복한 남자가 무거운 물체로 뒤통수를 쳐 땅에 넘어졌다고 나타났다. ① 팔을 휘두르며 류춘링의 머리를 호되게 치고 있다. ② 무거운 물체가 류춘링의 머리를 격타한 후 튕겨 나가고 있다. ③ 무거운 물체는 소화기가 쏘는 반대방향으로 경찰한테 날아갔다. ④ 군 외투를 입은 한 남자가 격타한 위치에 서 있는데 1초전에 힘있게 격타하던 자세를 여전히 보존하고 있다.

**【류춘링을 죽여 입을 막다】**중앙텔레비전의 “분신자살” 록상을 느린 화면으로 방송하면 분신자살자 류춘링(刘春玲)은 불에 타 죽은 것이 아니라 한 사복한 남자가 무거운 물체로 뒤통수를 쳐 땅에 넘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기자는 “분신자살”이 발생한 후, 류춘링의 고향 하남 개봉에 가서 조사하였다. 류의 이웃들은 종래로 그녀가 파룬궁을 련마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류춘링은 파룬궁 수련생이 아니다.

**【비닐병사리 불에 타지 않다】**왕진동은 전신이 새까맣게 탔으나 두 다리 사이에 휘발유를 담은 비닐 음료 병사리는 도리여 타지 않고 변형되지 않았다. 경찰은 멀화탄자를 들고 왕진동이 화면 앞에서 구호를 외치자 멀화탄자를 그의 몸에 던졌다. 도대체 분신자살인가 아니면 연극인가?



**【“분신자살 사기극” 련합국에서 폭로되었다】**국제교육발전조직 (IED) 은 2001년 8월 14일 련합국 회의에서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은 중공의 “국가 공포주의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성명은: 록상분석에서 표명하였는 바

6월 13일 새벽 2시 좌우에 수천은 갑자기 사체실에서 깨여나 당직 인원을 붙잡고 말했다: “당신은 왜 나를 구하지 않나요?” 당직인원은 겁에 질려 사체실에서 뛰쳐나왔다.

아침 6시 검사하러 온 의사는 수천의 동공이 정상인 것을 보고 몹시 놀랍고도 이상해 하였다.

수천은 깨여난 후 그녀는 지옥에서 저승님을 만났고 또 차 사고로 죽은 남편 류용 (柳勇—시법원인원, 파룬궁 수련생을 불법적으로 판결하는 안건을 맡았었다), 그리고 고판(高番) 법관 (파룬궁 수련생을 불법적으로 판결하는 안건을 맡았었다. 2007년 농력 신년에 급사) 등을 보았고 모두가 아래에서 형을 받고 있어요! 도처에 피가 흐르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고판은 그녀에게: 그들은 파룬궁 수련생의 안건을 접수하였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되였고 동료와 친한 친구의 권고를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하면서 지옥은 너무 고생스럽고 너무 두렵다고 알려주었다고 말했다.

수천은 이때 저승님이 그녀더러 무릎을 끓게 하고는 그녀가 탐오한 사실을 하나하나 읽었는데 년 월 일 마저 알고 있고 그녀의 친한 친구가 탈당하라고 권고한 사실마저 말하면서 그녀에게: “무릇 파룬궁을 박해한 사람 및 ‘3퇴’ (탈당, 탈단, 탈대) 하지 않은 사람은 전부 지옥에 떨어진다! 하나도 도망갈 수 없다! 당신은 먼저 돌아가 좋은 일을 하라.”고 말했다고 했다.

수천은 깨여나자 제일 먼저 탈당하련다고 말하고 아울러 법원 사람들에게 그들더러 탈당하라고 알리면서 그리고: “지옥과 저승님이 진짜로 있으니 더는 파룬궁을 박해하는 안건을 접수하지 말며 누가 접수하면 누가 죽습니다!”고 말했다. 수천은 또 절친, 동료들에게 저승의 모습을 말했다. 저승님은 고대 붉은 색 궁복을 입고 머리에 검은 색 오사모를 쓰고 있었는데 마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포공(包公) 그 낸대의 옷 같았고 키는 1미터 70에 수염이 있고 옆에 있는 서기관마저 그녀는 보았다고 말했다.

6월 14일 오후 5시 좌우 수천은 병원에서 잠든채 더는 깨여나지 않았다. 수천의 경력은 사람을 감탄시킨다: 신목여전(神目如电), 선악엔 보응이 있다는 거짓 아닌 진실이다. 시법원 사람은 수천이 그들에게 교훈을 알려주었다고 말했다. ◇



하남 로산현 법원 경찰차가 뒤집혀 뒷자리에 앉았던 3명 재판장이 참사했다

## "검찰원에서 하나 죽으면, 법원에서도 하나 죽는다"

“공산당이 무너지지 않는 한 나는 영원히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는 사람을 해치고 자신을 해치는 생각이다. 파룬궁 박해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중공을 “뒷심”으로 삼고 있지만 공교롭게도 중공은 제일 믿을 수 없다. 공산당은 법을 어기고 탐오하는 나쁜 사람을 좌우지 할 수 있지만 “하늘”을 좌우지 할 수 없다. 중공은 악한 일이란 다 하여 이미 “사람이 다스리지 않으면 하늘이 다스린다”는 지경에 이르렀다. 매우 많은 중공을 따라 박해한 “공안 검찰 법원” 인원은 법률의 제재를 받기도 전에 천리 응보를 당했다.

### 하남 로산현 법원 경찰차가 뒤집혀 세 재판장 참사

2011년 8월 14일, 하남성 로산현 법원의 경찰차가 정요 고속도로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해 차에 있던 10명 중 3명이 사망하였는데 차 뒷자리에

앉았던 양동성(楊東昇) 등 재판장 3명이 사망했다.

로산현 법원에서는 최소 9명의 파룬궁 수련생에게 불법 판결을 내렸는데 양동성이 두 명에게 중형판결을 내렸다. 파룬궁 수련생은 선행을 권하는 편지를 양동성 문 앞까지 보내주었고 전화로 그에게 진상을 알려준 사람도 있었다. (당시 법원에서 진상 전화를 받은 사람은 한사람 뿐이 아니었다.) 애석한 것은 이런 판사들은 권고를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태도가 강경해 “무슨 신앙이든 아니든 무슨 법률이든 아니든 간에 그저 당과 일치를 유지하며 파룬궁에 대해서는 절대로 가차 없다”고 말했다. 오늘날 악보가 내렸으니 후회는 이미 늦었다.

### 걷다가 사망했다 — 료녕 심양의 세 판사 뇌질환으로 급사

“(법관) 씨우동후이(邹东辉), 어안푸(鄂安福)가 당한 응보가 다 뭐야, 나는 그래도 팬찮아!” 류예(柳晔—료녕성 심양시 심북신구역 법원 부원장)는 이런 호언장담을 내뱉을 땐 아마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지 않았을 뿐, 때가 되기만 하면 모두 응보를 받는다”는 천리를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2014년 7월 10일, 류예는 동료와 함께 일처리 하려고 외출했다. 걷다가 갑자기 뇌출혈로 사망했는데 향년 56세였다. 류예는 그 법원에서 세 번째로 뇌질환으로 사망한 판사다. 그는 생전에 파룬궁 수련생을 불법적으로 재판하고 판결하는데 여러 번 참여했다.

장원(張文)은 료녕성 심양시 심북신구역 법원 심판위원회 위원이자 부원장이다. 2009년 2월 중순경, 뇌에 갑자기 괴질이 생겨 북경에서 치료하는 중 사망했다. 사망 직전 그는 4명의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불법 중형판결에 참여했다.[왕수메이(王素梅)10년, 시창하이(奚常海)11년, 쑰위수(孙玉书)8년, 훠더푸(霍德福)6년].

어안푸(鄂安福)는 심양시 심북신구역 법원 판사로 45세 되던 해 2011년 2월 18일 뇌출혈로 두 달간 위급치료를 받아 사망했다. 어안푸는 2001년 5명 파룬궁 수련생을 비밀리에 3년~8년 중형 판결에 언도했는데 그 중 녀 교사 왕민(王敏)은 자신의 옛 동료였는데 그녀를 료녕성 녀

간암으로 죽었다.

이상은 근근히 근 몇일 밍후이왕에서 보도한 대륙 각지에서 발생한 악보 사례이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창궐하게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하였다.

\* \* \* \* \*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까지, 파룬궁을 박해하여 악보 당한 중공인원은 이미 2만 여명에 달하며 어떤 사람은 가족에까지 미치였다. 근근히 중공 “18대” 후, 3개 월내에 340명 정법위원회 서기가 급사, “당적 공적 처벌”, 차사고, 타살 등 여러가지 형식으로 죽었거나 그물에 걸렸고 게다가 기타 각급 정법위원회 관원이 3개월 내에 악보당한 자는 이미 453명이다.

15년전, 중공이 파룬궁 박해를 시작할 때 박해에 참여한 중공인원들의 기염은 사나웠다. 파룬궁 수련생이 자비롭게 그들에게 “선악엔 응보가 따른다”고 알려 줄 때 그들은 의외로 “왜서 나는 아직도 악보받지 않았는가”고 되 물었다. 잠시 아직 악보를 당하지 않은 것은 하늘이 자비로움이 악행자들에게 회개하고 속죄할 기회를 준 것이며 악보가 진짜로 왔을 때는 후회해도 늦었다.

밍후이왕에서 보도한 악보 사례들은 매우 많다.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특히는 법을 집행하며 법을 위반하고 파룬궁을 박해한 사람은 모두 마땅히 보아야 한다. 리성이 아직 있는 사람은 랭정하게 진상을 료해하여 자신과 가족들한테 미래가 있기를 바란다. ◇

## 법원인원 “죽었다 살아나” 진실을 말하다

【밍후이왕】신강 농8사 석하자시 중급법원의 수첸(苏倩)은 안건을 처리할 때 매우 많은 돈을 탐오했다. 2007년 6월 초, 그녀는 갑자기 백혈병에 걸렸는데 이미 말기였다. 친한 친구는 “하늘이 중공을 멸하니 탈당(단, 대)하면 생명을 보호한다”는 것을 알고 그녀더러 탈당하라고 권고했지만 그녀는 탈퇴하지 않았고 6월 12일 아침 9시에 사망하여 사체실에 보냈다.

6. 호남성 회화시 정협 부주석 양동영(楊冬英) : 조사받다 (수감되다)
7. 하북성 삼하시 부시장 류용홍(劉永宏) : 심근경색 (사망)
8. 료녕성 심양시 검찰원 검찰장 장동양(張東陽) : 조사받다 (수감되다)
9. 료녕성 단동 시위서기 차이저푸(蔡哲夫) : 자살 (사망)
10. 료녕성 동항시 농간국 산원산(单云山) : 체포 (수감되다)
11. 호북성 무한시 신주구 위원회 서기 왕스이(王世益) : 조사받다 (수감되다)
12. 감숙성 공안청 부청장 요위안(姚遠) : 간암 (사망)
13. 흑룡강성 밀산시위 서기 왕지리(王吉利) : 조사받다 (수감되다)
14. 전국 정협 부주석 쑤룽(苏荣) : 조사받다 (수감되다)
15. 삼서성 서향현 공안국 국장 딩신선(丁新善) : 조사받다 (수감되다)
16. 하북성 만성현 현위서기 엔즈창(闫志强) : 이선암 (사망)
17. 하북성 동광현 현장 뒤흥홍(段永紅) : 유선암 (사망)
18. 흑룡강성 학강시 공안국 국장 리옌원(李彥文) : 암증 (사망)
19. 산서성 정법위원회 서기 진도밍(金道銘) : 조사받다 (수감되다)
20. 흑룡강성 건삼강 관리국 서기 왕도밍(王道明) : 암증 (사망)

## 2. 악행자가 당한 악보 안건은 갈수록 밀집하고 비참하다

▲ 루광(卢光0), 흑룡강성 화남현 공안국 부국장, 2014년 6월 11일 뇌암 병변으로 사망, 향년 53세.

▲ 구덴중(郭殿忠), 하북성 적성현 룽문소진 묘완촌 서기이다. 2014년 6월, 모터찌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 넘어져 황천객이 되었다.

▲ 천친라이(陈秦来), 하북성 친황도시 공안국 건설대가 파출소 소장이다. 2014년 6월 30일, 직장에서 근무하다 판공탁상 옆쪽에 넘어져 진황도 인민병원으로 호송하였는데 심원성 급사 진단을 내렸다. 향년 46세였다.

▲ 탄리(譚力), 해남성 부성장, 엄중한 기률위법, 법률위법 혐의로 2014년 7월 8일 조사 받았다.

▲ 초다웨이(曹大伟), 하남성 정주 완청산장(세뇌반) 책임자이다. 2014년 정월 초 나흘 날 갑자기 심장병으로 사망했다. 향년 54세이다.

▲ 류춘샤오(刘春晓), 치치할 태래감옥 16대대 대장이다. 2013년 12월

자 감옥에 보내 박해를 당하게 했다.

소식에 따르면 어안푸는 림종 전에 응보에 대한 공포였는지 아니면 내심으로부터의 후회였는지 가족에게 “어서 파룬궁을 련마하는 사람을 찾아라! 어서 파룬궁을 련마하는 사람을 찾아라!”라고 강력하게 당부했고 아울러 파룬궁 수련생에게 자기의 죄를 참회했다.

## 최초로 파룬궁 수련생을 판결한 판사 천위안차오는 폐암으로 사망

천위안차오(陈援朝)은 해남성 해구시 중급법원 형사 1정 재판장이다. 1999년 11월 12일, 전국에 파룬궁 수련생을 불법심사 첫 안건에서 그가 재판장을 맡고 불법으로 4명 파룬궁 수련생을 2~12년 판결을 내렸다. 그는 이로 인해 중공정법위원회 서기 라간과 최고법원의 “칭찬”을 받았고, 해구중급법원 형사 1정은 “단체 2등공”을 세웠고, 천위안초는 “개인 2등 공신”이 됐다. 하지만 악엔 악보가 있다. 2002년 3월 18일, 천위안차오는 폐암에 걸려 다음해 9월 2일에 고통속에서 사망했는데 그해 51살이였다.

## 중형 판결로 좋은 사람을 해친 흑룡강 할빈 부재판장이 두 가지 암에 걸려 급사

위안취안성(原全生)은 흑룡강성 할빈시 남강구역 법원 형사재판청 부재판장으로 파룬궁 수련생에게 불법 중형 판결(12년, 15년)을 언도했으며 2002년 9월에 암으로 사망했다. 소식에 따르면 그는 갑자기 병에 걸렸다고 한다. 2002년 6월, 점심시간에 트럼프를 하고 놀 때 갑자기 배가 아파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 간암이었고 이 후에 또 골암으로 전이됐다. 40여세인 그는 석 달 동안 고통을 당한 후 사망했다.

## “홍산식” 억울한 사건을 조작한 무한 판사 갑자기 쓰러지더니 사망

리야오빙(李要兵)은 호북성 무한시 홍산구역 법원 형사청 정과급 재판원이다. 2009년 4월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불법적인 재판과 관련된 안건에 참여했는데 이 박해 안건은 중공 당국에서는 “홍산식”으로 지정돼 무한시 법원 계통에서 “널리 보급” 됐다. 두 달 후 리야오빙은 갑자기 쓰러지더니 사망했는데 당시 49살이였다.

“당을 따라 끝까지 분투하겠다”고 하던 재판장은 “낚시”에 걸려 강바닥으로 끌려갔다

왕징예(汪竟业)는 호남성 회화시 학성구역 법원 형사심판청 재판장으로 2013년 7월 21일 회화 야추암향 하천에서 낚시를 하다가 낚싯대가 물고기한테 끌려갔다. 왕은 낚싯대를 건지려다 오히려 “낚시”에 걸려 물에 빠져 죽었는데 향년 48세였다. 이전에, 왕징예는 최소한 파룬궁 수련생 17명을 억울하게 판결했다. 그 중 젊은 파룬궁 수련생 판젠쥔(潘建军)에게 7년 감옥살이를 언도했는데 2004년 1월 23일에 주주시 유현 왕링 감옥에서 고문 박해로 사망했다. 2013년 4월, 왕징예는 천카이위(陈开玉 11년 판결)에게 불법판결을 내렸다. 파룬궁 수련생은 왕징예에게 중공을 따라 악행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고 진상자료를 보내주면 받지 않으면서 확고하게 : “나는 공산당을 따라 끝까지 분투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석 달 후 왕징예는 낚시하다 강바닥으로 끌려들어가 물에 빠져 죽었다.

### “검찰원에서 하나 죽으면 법원에서도 하나 죽는다”

2009년 9월, 료녕성 대련시 감병자구역 검찰원의 두 검찰관이 파룬궁 박해에 참여하여 응보를 받아 백혈병에 걸려 죽었다. 이 일이 맹후이왕에 폭로된 후 현지 내막을 아는 검찰관이 말했다 : “어디 두 명 뿐인가요 이미 여럿이 됩니다. 백혈병뿐 아니고 간암이 제일 많습니다. 검찰원에서 한 명 죽으면 법원에서도 한 명 죽고, 법원에서 한 명 죽으면 검찰원에서도 한 명 죽습니다. 게다가 아주 정확합니다.” ◇

## 공안인원의 비극

“전국 영웅모범” 남을 해치더니 최후 자신을 해치고 악보는 기록에 미치였다

런창샤(任长霞), 40세, 하남 등봉시 공안국 국장, 파룬궁 박해에 힘을 아끼지 않아 중공의 “전국 영웅모범”으로 되었다. 2004년 4월, 승용차 추격 사고에서 그녀는 뒷 자리 가장 안전한 곳에 앉았지만 사망했고 차안

수련생을 납치하고 구타했다. 그는 모터찌클을 타고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오장육부가 드러난 죽음은 공포스러웠다.

▲쉬하이산(徐海山), 산동 덕주 동지 파출소 경찰장이다. 죽은 후 산산조각 내여 불에 태워 혼적을 감추었다.

▲천위쥔(陈玉君), 43세, 흑룡강성 화남현 국보대대 경찰이다. “운동 자전거”를 타고 단련하러 가다 차와 사람은 모두 길 옆의 골짜기에 빠져 사망했다.

▲양동잉(杨冬英)은 원 호남성 회화시 정협 부주석이다. 감옥에서 스스로 옷을 벗고 벽에 부딪쳐 자살(미수)하였다. 류용홍(刘永宏), 49세, 하북 랑방삼하시 정법위원회 서기인데 놀라 죽었다. 장더룽(张德荣)은 하북 래수현 의안진 촌 간부이다. 재채기를 하다 혀를 물어 끊어버려 생생하게 아파죽었다.....

아래는 2014 상반년에 새로 증가 된 악보 당한 236 명중 부분 인원이다

- 1, 산동성 하진현 공안국 부국장 왕수옌(王书岩) : 차사고 (사망)
- 2, 산동성 위방시 부시장 천바이펑(陈白峰) : 자살 (사망)
- 3, 하북성 한단시 공안국 부국장 스바오중(石宝中) : 식도암 (고질병)
- 4, 운남성 부성장 선페이펑(沈培平) : 당적, 공적 처벌 (수감되다)
- 5, 료녕성 단동 시장 장쭤옹(姜作勇) : 이선암 (사망)



토쉬웨이 차사고 사망 현장



2014 상반년 새로 증가 된 악보 당한 부분 인원 1~20 번, 가로 왼쪽부터

이 신문을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기간, 날조 공구로 만들어 극히 나쁜 영향을 미치였다. 2005년 11월 16일 오전, 란주에서 석방된 인원한테 살해당했다. 향년 60세였다.

### 《적봉일보》총 편집 암병으로 사망

왕란(王然)은 내몽고《적봉일보》총 편집으로 파룬궁을 비방하는 문장을 대량 발표하여 세상사람을 독해함으로 당시 박해 형세를 격화시켰다. 2005년, 왕란은 암병에 걸려 수술하였고, 2006년 재차 암에 걸려 간 이식 수술을 하였는데 치료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향년 53세였다. ◇

## 창궐하던데로 부터 경황실책 악행자가 당한 응보 갈수록 밀집하고 비참하다

### 1. 2014 상반년 236명 중공인원이 응보당한 안건이 또 폭로되였다

밍후이왕 2014년 7월 4일에 발표한 《2014 상반년 236명 중공인원이 응보 당한 안건이 또 폭로되다》는 조사보고에서 악보로 죽는 주요 방식은: 암증, 차사고, 급사였다.

▲허후이승(何惠雄), 58세, 광동성 산미시 “610”두목으로 파룬궁 박해에 힘을 아끼지 않아 2014년 4월 23일 두가지 암(식도암, 폐암)이 목숨을 앗아갔다. 당시 광주에서 치료할 수 없자 그를 선미로 보내는 도중 후문의 동굴 어구를 지날 때 죽었다. 민간에서는 “반로사(半路死)”라 한다.

▲타오쉬웨이(陶緒伟)는 흑룡강성 이춘시 금산둔구역 공안국 형사경찰대 부대장이고 “610”작은 두목으로, 2014년 5월 3일 오후 차에 치워 사망했다. 그는 생전에 줄곧 위로 기여 오르려고 적극적으로 중공을 따라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했다. 그와 대장 장위이(张伟)는 박해 수단을 계획하고 어떤 혹형을 쓰는 등을 결정하였다. 토쉬웨이는 직접 파룬궁 수련생 푸구이루(付桂茹)를 혹독하게 때리고 혹형으로 류스취안(刘仕全)과 초링펑(曹玲凤)부부를 구박했고 혹형으로 바오용성(包永胜), 장페이이췬(张培訓), 불구자 왕신춘(王新春)등 사람들을 구박했다.

▲푸이펑(扶义平), 40여세, 호남성 계동현 신방향 부향장으로 파룬궁

의 다른 사람은 아무일도 없었다. 런창사는 사망 전 날 20여명 파룬궁 수련생을 납치하라는 명을 직접 하달했다. 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하여 가족에 까지 미치였다. 45세인 런창사의 남편은 2008년 갑자기 뇌출혈로 사망했다. 런창사의 집에는 아이 하나만 남았다.

### 로교소 경찰의 응보 : 전화로 박해를 포치하다 수화기 옆에서 급사

웨이산(魏山 음)은 사천성 중경시 녀자 로교소 남자 경찰로서 파룬궁 수련생을 잔혹하게 박해하여 시 공안계통 상을 받았다. 2003년, 그는 시교 병원에 가서 신체검사를 하였는데 전신이 무병했다. 일주일 후 판공실에서 전화로 파룬궁 수련생을 어떻게 박해하라고 포지하다 수화기 옆에서 급사했는데 향년 40세였다.

### “하늘이 무너지면 모두가 죽는다”? 담벽이 무너지더니 오직 그만 쳤다 —공안, 국가안전국 국장 응보 받다

▲치완린(戚万林)은 사천 중경 “국가 안전국”에서 10여년간 국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특무더러 파룬궁 수련생으로 변장하고 소란을 일으키게 하였다. 2014년 3월 20일, 치완린은 남교사의 통호건축 공지에서 약 10미터 되는 위험한 담벽을 지나다가 담벽이 무너져 치완린은 다쳐 사망했다.

▲추이젠거우(崔建国)는 산동성 하진현 공안국 부국장으로 많은 파룬궁 수련생한테서 돈 재물을 락탈했다. 그는 현숙한 전처와 리혼하고 권세가 있는 훠위펑(훠는 마비로 누워 있는 남편과 리혼)과 결혼했다. 결혼 후 얼마 안되어 추이젠거우는 차사고로 죽었다.

▲치젠훈(齐建文)은 원 한중시 공안국 판공실 주임이였는데 남정현 공안국 국장이 된 후, 더욱 격하게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 하였다. 2010년 9월, 치젠훈은 병원에서 검사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와 다음 날 입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집에서 급사하였다. 향년 50세에 재혼한 그는 아내를 버리고 갔다.

▲쑤량머우(苏良谋)는 삼서성 보계시 매현 공안국 국장으로 상방하려 갔던 많은 파룬궁 수련생을 가로 채 불법적으로 감금하고 미친듯이 때렸다. 쑤량머우는 2003년 뇌출혈로 병원 화장실에 쓰러져 죽었다. ◇

# 매체인이 당한 악보

국제 사회에서는 “증오선전”은 인류가 직면한 가장 주요한 위험중의 하나로 인정했다.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후 뉴문보 국제 법정은 증오선전자에 교사형을 실시하였다.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운동에서 거짓 뉴스를 리용하여 파룬불법을 비방하고 민중의 증오심을 선동한 자의 죄업은 매우 엄중하다.

## CCTV 《뉴스보도》 주요 방송인이 악보 받다

뤄징(罗京)은 CCTV 뉴스보도 집행자이자 CCTV 뉴스편집부 부과장이고 중공 “17대” 대표이다. 1989년 “6·4” 때 전 사회는 보편적으로 애국학생들을 지지하였지만 공산당의 숙청을 겪은 끊임은 인츰 태도를 바꾸어, “기치가 선명”하게 “당중앙”을 지지하였다. 1999년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후 끊임은 중공의 박해운동의 가장 중요한 대변인이 되었다. 최초의 뉴스 비판 “공세”로부터 이 후 몇년 간 대량의 파룬궁을 비방하는 거짓 소식을 그는 모두 향심을 어기고 방송했다. 방송인으로서 그는 완전히 향지를 포기하고 백성을 우롱 기쁘하면서 증오를 선동했다.

2008년, 끊임은 립파암에 걸려 골수이식 후 기본상 회복되었다. 하지만 두 달 후 재발하였고 아울러 구강괴양등 합병증이 나타났다. 혀에 괴양이 생겨 말 할 수 없고 아픔은 참기 어려웠다. 내막을 알고 있는 병원의 사람은 몰래 의논하였다 : 끊임은 입으로 사람을 기쁘하여 결국 그의 입을 그렇게 썩게 만들었으니 정말 보응입니다! 끊임이 죽을 때 48세였다.

## 《하남일보》 신문업 집단 사장 철모에 목숨을 잃다

2007년 2월 9일, 유람선 한척이 베트남 망제 부근 해면에서 항행하고 있었다. 갑자기, 선객 양용더(杨永德)의 핸드폰이 울리자 그는 선실 밖으



로 나가 뱃전 옆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다.

당시 바람은 약하고 파도도 낮아 날씨는 그래도 좋았다. 생각지도 못하게 잠깐사이에 하늘에 한덩이 구름안개가 나타나더니 구름안개는 빠르게 주위의 해면을 뒤덮었다. 갑자기 “퉁”하는 커다란 소리가 나더니 유람선은 석탄운수 선과 부딪쳐 선체가 맹렬히 진동하면서 양용더를 바다에 내던졌다.

양용더는 얼음같이 찬 바다 물 속에서 죽기내기로 발버둥쳤다. 유람선은 긴급히 닻을 내려 배를 멈추었다. 누가 알았으랴 무거운 철닻은 딱 마침 양용더의 머리를 치면서 64세인 그의 생명을 결속지었다.

양용더는 《하남일보》 신문업 집단 이사장, 사장으로 중공을 적극 따라 그가 통제하고 있는 여러 신문에서 파룬궁을 모독하는 내용을 대량적으로 보도했고 거짓말을 펴뜨리면서 민중을 독해했다. 양용더는 또 부하들을 시켜 정주시 “610 판공실” 및 공안과 배합하여 본 직장의 파룬궁 수련생 허산푸(和三普)를 — 연고 없이 부처급인 그의 대우를 철소하고는 로교소에 납치하여 못살게 굴었고 로교 기한이 끝난 후 집에 보내지 않고 직접 완창산장 세뇌반에 납치하여 5개월을 구금 세뇌했다. 해뇌외 파룬궁 수련생이 여러 번 전화에서 선행을 권고했다. 유감스러운 것은 양용더는 시종 잘못을 고집하여 깨닫지 못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궁지로 향했다.

## 《장춘일보》 신문업 집단 총재 암으로 사망

왕쿤(王坤), 녀, 《장춘일보》 신문업 집단 총재이다. 여러 번 회의에서 “당보기구 간부가 파룬궁을 련마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의 부추김하에 《장춘일보》, 《장춘완보》는 대량의 파룬궁을 비방하는 문장을 실어 광대한 독자들을 독해했다. 왕쿤의 변이된 품행은 직장에서 뇌물주는 것을 일삼는 사악한 기를 상승시켜 7~8명의 간부는 사법부문의 법처리를 받고 그녀 본인은 “당적, 공적을 철직” 당했다. 2009년 새해 기간에 55세인 왕쿤은 더 한층 악보 받아 암병으로 죽었다.

## 《감숙일보》 사 사장은 석방된 인원한테 살해당했다

스성광(石星光)은 감숙성 선전부 부부장, 《감숙일보》 사 사장으로 그는